

‘한국병합’ 100 년

우라베 노리호(浦部法穂)· 호각칸(法学館)헌법연구소 고문

2010 년 8 월 26 일

올해는 ‘한국병합’ 100 년이 되는 해이다. 1910 년 8 월 22 일,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같은 달 29 일 공포되었고, 이후 36 년간에 걸친 일본의 한국지배가 시작되었다. 원래 그 이전에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으며(1905 년)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았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병합’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100 년이라는 전기를 맞아 8 월 10 일, 간(菅) 내각은 수상담화를 발표하여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多大)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수상담화에 대해서 언제나처럼 ‘자학적이다’라거나 ‘몇 번이고 사죄할 필요가 있는가’는 비판이나 거꾸로 ‘병합’이 협박·강제에 의한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아 불충분하다는 등의 비판도 있었다. 지금까지 일본의 역대수상은 1984 년의 나카소네(中曾根)수상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반성’이나 ‘진사(陳謝)’를 표명해왔다. 그리고 1995 년 이른바 ‘무라야마(村山)담화’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여 이후의 내각도 기본적으로 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해왔다. 이번 ‘간 담화’도 기본적으로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 것이지만, 식민지 지배가 한국 사람들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한 점은 종래보다도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역대수상이 몇 차례나 사죄를 하는 것이 확실히 예사로운 모습은 아니다. 사죄하는 것 자체보다도 몇 번이고 사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몇 번 사죄해도 상대에게 본심으로부터의 사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만 하는 반성과 사죄라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반성과 사죄’를 입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열쇠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 나타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1910 년의 ‘한국병합’은 청일전쟁 뒤인 1895 년의 타이완 영유와 함께 일본이 구미 제국주의 열강에게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길을 걸을 것을 선택한 것의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대는 더욱 거슬러 올라간 것이긴 하지만 NHK 의 대하드라마 ‘료마덴(龍馬伝)’에 그 시대의 심정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언가 ‘송고한 이상’인 것처럼

그러져 있는 데에 나는 무언가 거북함을 느낀다. 어쨌든 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 의한 식민지 쟁탈전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당시의 제국주의적 질서 속에서 일본은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빼앗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든가, 그렇지 않았다면 일본이 미국이나 영국 등의 식민지가 되었을 터이니, 당시의 선택으로서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역사에 ‘가령~이라면’과 같은 것은 없으니까 그러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사실로서 그러했다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헌법 전문에서 ‘전세계의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제 9 조에서 전쟁포기와 전력불보유를 선언했다. 즉 구미 제국주의 열강에 끼어 식민지 쟁탈전을 전개해 온 제국주의 국가 일본이 군사력과 군사적 수단을 모두 포기하고 전세계 사람들의 평화적 생존의 실현을 지향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선언한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국주의와의 결별 선언인 것이다. 즉 제국주의는 바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한 이상 한국과 타이완에 대한 식민지 지배나 중국과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침략도 당연히 잘못된 행위로 총괄되는 것이며 또한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구미 제국주의에도 부정적 평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자학’도 아무것도 아닌 역사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그러한 점을 애매하게 두고 ‘좋은 면도 있었다’는 등 거꾸로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정치가가 있다든지 교과서 검정에서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또는 미국이 하는 대로 무엇이든 따라가기만 하는 것으로는 ‘반성과 사죄’를 아무리 입으로 말한다 해도 말로만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이 일본국 헌법의 입장이며 이 헌법 아래의 정부는 그 점을 명확히 확인해야만 한다. 그 위에서 헌법에서 선언한 전 세계 사람들의 평화적 생존의 실현을 진심으로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과거청산’이 아닐까.